‘건설의 틀’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올 2.3만 가구 공급

건설, 飛上 2020 전략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2020년을 ‘내실성장을 통한 미래시장 개척의 해’로 정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는 목표다. 올해는 총 22개단지에서 아파트 2만276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지난달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슬로건을 ‘2020! 내실성장을 통한 미래시장 개척의 해!’라고 정했다”며 “롯데건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2020년 경영방침으로 ▲수익성 중심 경영 ▲기본과 원칙경영 강화 ▲글로벌 및 미래시장 개척 확대 ▲스마트한 조직문화 조기 정착 등 4가지를 꼽았다.

◆미래시장개척, 스마트 조직문화

롯데건설은 수익성 강화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임대사업과 개발사업 강화, 화공플랜트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역량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하 사장은 기본과 원칙경영 강화와 관련해선 ‘안전’을 강조했고 미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마트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건설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 사장은 “네 가지 경영방침 외에도 대외적으로 롯데건설이 ‘좋은 일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우리가 하는 활동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38건, 사회공헌 활동 펼쳐

롯데건설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87개의 봉사팀이 238건의 사회공헌을 펼쳤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수익성 중심, 기본·원칙 경영 강화
글로벌 개척 확대, 조직문화 정착 등
내실성장 통해 미래시장 개척나서

22개 단지서 2만2766가구 공급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도 잇따라

롯데건설이 활발한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1대 3 매칭 그랜트 제도’덕분이라는 평이다. 1대 3 매칭 그랜트 제도는 매달 전 임직원이 급여 일부분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는 그 3배를 기부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1대 1 매칭 그랜트 제도보다 상향된 모금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를 통해 매년 러브하우스를 비롯해 현충원 묘역 단장, 사랑의 연탄 나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해외영업본부의 봉사팀은 2014년부터 매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원의 봉사팀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 관람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 현장 중 하나인 토목사업본부 베트남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1공구 현장의 봉사팀은 현장 인근 베트남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과 후원 물품을 지급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현충일과 국군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묘역 단장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임직원과 가족으로 이루어진 롯데건설의 봉사단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를 하고 묘역 헌화,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 묘역 단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하게 활동해온 결과, 2018년 12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올해 주택공급 22개단지 2만2766가구 예정

롯데건설은 올해 시행사 공급물량을 포함해 총 22개 단지에서 2만2766가구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개 단지에 총 2만2766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1만4391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5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첫 분양 단지는 오는 2월 ‘여수 웅천 마리나 OT’에서 총 546가구를 공급한다. ‘부산 서면 부천동 OT’ 352가구도 같은달 공급 될 계획이다.

3월엔 ‘신반포 14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80가구 중 일반분양은 67가구다. 4월에는 총 8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서울 주요 단지들이 분양 예정이다. 신반포13차 단지는 총 330가구 중 일반분양이 101가구이다. 자양1단지는 총 878가구 중 50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둔촌주공은 총 2828가구 중 일반분양이 1139가구로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있다.

길음역세권은 총 395가구 중 219가구이며, 의정부 가능1단지는 총 466가구 중 326가구다. 상계6은 총 1163가구 중 72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속초 동명동 단지는 일반분양만으로 576가구가 공급된다. 여수 응천 오피스텔 역시 470실이다.

5월에는 능곡연합 264가구, 부산 부암1단지는 총 2195가구 중 142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오산 원동은 234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6월은 부산북향초고층 872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7월에는 수원망포 2차 1211가구, 9월 화정반정2차 총 125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1월에는 광명2R 단지는 총 1003가구 중 216가구가 일반분양되고, 같은달 마트 수지점 공동주택 7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2월는 청담삼익 단지가 총 1230가구 중 152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잠실미성이 총 1888가구 중 241가구가 들어선다. 인천청천1단지는 총 893 가구 중 62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투시도 /롯데건설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50대 노후준비 위한 THE100리포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는 5일 50+세대 특집 ‘THE100리포트 60호’를 발간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및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이번 60호의 첫 번째 리포트인 ‘대한민국 평균 가장 50대, 노후는 안녕하십니까?’에서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평균 가장 50대의 경제현황과 노후준비 현황을 살폈다. 두 번째 리포트 ‘50대를 위한 OPAL 노후자산관리전략’에서는 오팔세대처럼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50대를 위한 노후자산관리전략을 알파벳 OPAL을 활용하여 제안했다. /손엄지 기자

KB증권

신용금리 0% 제공 등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KB증권이 주식타사대체입고 이벤트와 신용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식타사대체입고 이벤트는 오는 3월까지 타 증권사에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KB증권 비대면·은행연계 계좌로 ▲3000만원 이상 순 입고 ▲1000만원 이상 매매 ▲입고 후 5개월 동안 3000만원 이상 자산을 유지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최초 입고 후 5개월 동안 순 입고금액에 따라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내 매매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1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손엄지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나스닥100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TIGER나스닥100 ETF는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기대되는 IT, 소비재, 헬스케어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초 대비 순자산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초지수인 나스닥 100 인덱스는 미국 나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도소매무역, 생명공학 등의 업종대표주 100개로 구성된다.

금융회사는 편입하지 않고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으로 매분기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TIGER나스닥100 ETF는 완전복제 전략을 통해 기초지수와의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운용하며 별도의 환헤지는 실시하지 않는다. /송태화기자

교보증권, 박봉권 사장 선임… 김해준과 ‘투톱’

김해준 대표이사 연임 확실시

교보증권은 올해부터 ‘각자 대표’ 체제를 구축,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 영역 특화에 나선다.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사상 최고실적이라는 성과를 인정받아 역대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자리를 지키고, 박봉권 신임 사장은 내부 살림과 자산관리 부문을 맡게 됐다.

교보증권은 박봉권 사장을 신임 경영임원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박봉권 사장은 ‘경영총괄’로 경영지원과 자산관리(WM)부문을 담당한다.

김해준 대표의 연임 역시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오는 3월 주총에서 김 대표의 연임이 무리 없이 의결되면 총 6번의 연임, 12년 이상 대표직을 이어나간 증권업계 최장수 CEO가 된다.

이번 각자 대표체제의 배경은 교보증권의 ‘성장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등 두 대표가 각 전문 분야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 효율을 높이고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도 주효했다.

박봉권 교보증권 신임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

그간 교보증권의 실적은 IB의 성장이 이끌었다. 김 대표는 자기자본 9000억원 대의 중형 증권사임에도 일찌감치 주식 중개(브로커리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벗어나 구조화금융(SF), 프로젝스 파이낸싱(PF) 등 확고한 IB영역을 구축해 지난 해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

이에 따라 박 신임 사장은 IB보다 WM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신임 사장은 그간 자산관리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고, 과거 교보증권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 내부 사정에도 밝다.

박 신임 사장은 1990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2001년까지 주식과 채권운용 분야를 맡았다. 이후 HDC자산운용, 피데스자산운용을 거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연금에서 채권운용팀장, 위탁운용팀장, 증권운용실장으로 일했다. 특히 국민연금 재직기간 중 채권과 주식의 성과가 벤치마크를 하회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2010년 4월 교보증권 고유자산운용본부장으로 영입됐고, 2011년 교보생명 CIO(투자사업본부장)로 자리를 옮긴 후 지난해 12월까지 일했다. 올해부터는 교보증권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키움증권

年 17% ELS 등 5종

키움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ELS(주가연계증권)와 DLS(기타파생결합증권) 5종을 출시했다. ‘키움 제161회 DLS’는 만기 3년, 예상수익률 세전 연 7.0%다. 기초자산은 유로스톡스50지수, 홍콩H지수, WTI(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원유선물지수다. 조기상환기회는 6개월마다 있고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7%의 수익을 지급받는다.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세전 21%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그러나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송태화기자 alvin@